

줄다람이와 솔꽃가루

안 춘 옥

소나무 우거진 숲동산에 아지가 휘도록 노오란 솔꽃이 한 가득 피어났습니다.

개암골에서 엇그제 이사온 줄다람이는 그것을 보자 욕-욕심주머니가 블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생억지를 써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성미였습니다.

(저 솔꽃가루를 내가 몽땅 가져야겠는데...)

줄다람이는 두리번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욕심이 굴뚝같은 그는 몸에 좋은 솔꽃가루를 제 집에 옮겨다놓기 전엔 절대로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다가간 줄다람이는 큰 우산처럼 생긴 솔가지를 힘껏 잡아당긴 후 가랑잎들을 바닥에 퍼놓았습니다. 흙이 섞일가봐 걱정이었습니다.

뽀르르 나무잡이를 한 그는 솔가지로 솔꽃가루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노오란 솔꽃가루가 포시시 땅바닥에 쌓였습니다.

《줄다람아, 너 아까운 솔꽃가루를 왜 망탕 떨구는 거야.》

옆집의 청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야단쳤습니다.

《넌 별상관 다하누나.》

줄다람이는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혼쌀나봐야 알겠니?》

《뭘, 뭐라구?》

《넌 저밖에 모르는 애야.》

솔꽃가루를 한가득 뒤집어쓴 줄다람이는 솔가지를 휘두르다 말고 《그렇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니?》 하고 내쫓았습니다.

(남보다 먼저 선손을 쓰러는데 제 할 일이나 할것이지, 흥.)
줄다람이는 이번엔 나무아지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온 산판에 솔꽃가루가 마구 흩날리자 그것을 본 청서는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습니다.

《심술쟁이같은거.》

줄다람이는 입을 비죽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와 종달바구니에 솔꽃가루를 담았습니다.

줄다람이는 생각했습니다.

고소한 밤떡을 만들 때에도 솔꽃가루를 섞어 만들어먹으면 맛있고 살결도 무척 고와지고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젊어보일거라고 말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으로 솔꽃가루가 담긴 바구니를 메고 헛간으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줄다람아, 게 좀 썼거라.》

(영?!)

그가 뒤를 돌아다보니 뜻밖에도 메돼지가 청서와 어깨 나란히 서있었습니다.

《청서야, 메돼지형님을 왜 데리고왔니?》

하지만 청서는 마뜩지 않은 눈길로 그를 흘려볼뿐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겨울철도 가까와오기에 솔꽃가루를 털어 짐승들모두가 몸보신하려 했는데 우리가 미처 손도 대기 전에 네가 먼저

이렇게 수고해주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메돼지는 청서쪽에 대고 눈을 찔끔해보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줄다람이는 입만 하 벌리고 다물줄 몰랐습니다.

잠간사이에 연락을 받은 동산의 짐승들이 하나둘 다 모여왔습니다.

《자, 어서 줄다람이가 마련한 솔꽃가루를 타가라구요.》

메돼지가 한흠두흠 짐승들에게 솔꽃가루를 나누어줄 때였습니다.

《줄다람이인 역시 마음이 비단이군요.》

《낮도 익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세를 지다니...》

동산짐승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바빠난 줄다람이는 청서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인데다가 설사뎀이약으로도 제격인 솔꽃가루를 자네 혼자서만 먹으면 안되지.》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혼자 리득을 보려다 망신만 하누나.)